



지방 > 부산·경남

# 남해관광문화재단, 남파랑길 탐방 '길 해설사' 지원

(남해=뉴스1) 한송학 기자 | 2022-06-27 10:13 송고



남파랑길 42코스 '찐한 요가 후 트래킹' 장면(남해군 제공). © 뉴스1

경남 남해군은 남해관광문화재단에서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 참가자들을 위해 남파랑길 길해설사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남파랑길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코리아둘레길 4500km 중 남해안길 1470km의 구간으로 부산 오륙도해맞이공원에서 전남 해남 땅끝마을까지 23개 기초지자체에 걸친 90개 코스의 국가탐방로이다.

길 해설사 지원은 '남파랑길 길동무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 남해군 구간 11개 코스 160km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8개 체험형 중단거리 코스인 '테마탐방형'과 10명 이상 단체가 신청하는 '단체탐방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비용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 남해군에서 후원해 무료로 지원되며 패러글라이딩이나 파워 보트, 요가 같은 유료체험과 입장시설은 현장에서 신청자가 부담한다.

테마탐방형 8개 프로그램은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과 남해각이 연결된 '노량해전과 남해각 핫플(남파랑길 46코스)', '파워 보트와 앵강만(남파랑길 41, 42코스)', '찐한 요가 후 트래킹(남파랑길 42코스)', '토스카나 고사리밭길(남파랑길 37코스)' 등이다.

단체탐방형 프로그램은 남파랑길 36~46코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1개 코스 전체를 걷지 않고 일부 구간만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남해바래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남해바래길탐방안내센터와 남해바래길 홈페이지 내 소식란을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